

# 아이좋아 경남교육

2018. vol.22 **10**월호



통영 총렬여고 '디자인공모전 동아리'

경상남도교육청 매거진 2018년 10월호(통권 제22호) 월간  
2017년 2월 27일 등록 창원, 라00030

# 아이좋아 경남교육



## COVER STORY

동피랑 골목에서 통영 총렬여자고등학교 '디자인공모전 동아리' 학생들이 섬세한 손길로 벽화를 그린다.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물감으로 찍어 그린 듯한 벽화 앞에서 다 함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오늘. 그들의 소중한 추억도 동피랑에 그려진다.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055)278-1784 <http://www.gne.go.kr>  
**편집인** 홍보담당관 신기석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김순선, 주무관 윤정순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경남신문사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에 게재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본 인쇄물은 시각장애이용 보이스야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CONTENTS

### 아이좋아 생각

04 글밭을 키우는 독서의 계절, 가을

### 꿈이 있는 교육

06 맛있는 교육 레시피

경남학생인권조례

10 여기, 이곳

창원도서관은 경남 STAR(스타) 도서관

하동 옥중초등학교 도서관

양산 서창중학교 책벗마루 도서관

18 유럽 교육현장을 가다

2018 유공교원 해외 교육문화체험 연수기

22 별난 선생님

‘토박이말’ 가르치는 진주 신진초 이창수 교사

환경교육에 푹 빠진 창원 삼계중 윤병열 교사

30 동아리

벽화에 꿈을 디자인하는 통영 총렬여고 동아리

34 별별 꿈

‘77세 할머니 만학 꿈’ 합천 대병중 신애자 씨



## 소통과 공감

- 38 즐겁지 아니한가(家)**  
창원 석동중 1학년 김병욱 학생 가정  
-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며 꿈을 응원”
- 42 엄마들의 수다**  
고성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체’ 이야기
- 46 응답하라 세대공감**  
부모세대와 요즘 아이들의 학예발표회
- 50 교육공동체**  
양산 행복교육지구 ‘달빛공동체학교’

## 함께하는 교육

- 54 힐링&필링 여행**  
박경리 ‘문학의 고향’ 하동과 통영
- 58 심포와 느낌포**  
10월 가볼만한 문화행사  
책 읽는 경남- 다독다독 & 행복한 책 읽기 캠페인
- 62 교육소식**  
하동교육지원청 ‘2018 엄마랑 청렴 캠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안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식
- 66 정보마당**  
학교폭력 예방 웹툰
- 70 경남교육청 ‘청렴 거름망’**
- 71 독자참여, 구독신청, 앱으로 보기**



# 글밭을 키우는 독서의 계절, 가을

“글을 잘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키워 마음속 글밭을 더 크게 해보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을 쓰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글은 오히려 빛이 바랄 때가 많다.  
단 몇 줄의 낙서 같은 글일지라도,  
마음이 담긴 글이 무게가 더 나간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한다.  
‘마음의 글밭을 가꾸라’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책 한 권 손에 들고 읽는 것,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만나는 것,  
어쩌면 글을 잘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READING



경남학생인권조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경남교육에서 실현

프랑스 톨레랑스 정신은  
당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행동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우선 남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행동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교복 입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엄숙한 결단입니다.

“삼십 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지난날 부끄러웠던 우리 교실의 급훈입니다. 심지어 모 업체는 학용품에 이 문구를 새겨 온라인에서 판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문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으며,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어 왔습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훈육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이러한 폐습을 인권과 교육의 이름으로 바뀌나감으로써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

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분위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퍼져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교육 수단으로 포장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옷차림과 두발을 규제하며, 심지어는 학생 사생활에까지 개입하는 등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 당사자 간 많은 논쟁과 협의를 통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명료하게 제시한 국제사회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교복 입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엄숙한 결단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엄연한 인권 주체임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 구성의  
당당한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스  
스로 의지와 능력을 통해 꾸려나갈 수 있음  
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기  
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형과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두에게 알림으로  
써 학생 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  
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제4조 4항 기  
본원칙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  
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  
의 학습권과 연구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  
생이 다른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배려할 수 있는, 상호협력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명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인권과 교육권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  
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6  
조 차별의 금지”에 “학생은 학년, 나이, 성  
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  
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  
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  
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  
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해야 하며, 수업은 즐거워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해당 조문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프랑스의 정신인 퐁레랑스의 출발점은 “당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행동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우선 남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행동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해야 하며, 수업은 즐거워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라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글 오용주(정책기획관 장학사)



창원도서관

공부하고(Study), 함께하며(Together), 즐겁게(Amazing), 책 읽는(Reading)

# 창원도서관은 경남 STAR 도서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 때, 나만 잘하는 게 없다고 낙담할 때,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인지 궁금할 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을 때, 대부분 답은 책 속에 있다.

알고 싶고 묻고 싶고, 울고 싶고 웃고 싶은 모든 정보와 감정의 대답 또한 책 속에 있다.

책 속에 있는 대답을 가장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 다름 아닌 ‘도서관’이다.

아직도 도서관이 그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창원도서관’을 만난 적이 없을 것이다.

## 35년 동안 독서문화 조성에 큰 역할

일본어와 중국어 회화를 배우고 라인댄스와 우쿨렐레를 익힌다. 한국사와 세계문화를 탐험하고, 미술과 토론을 배우기도 한다. 인문학 강연이 펼쳐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문화 축제에 참여하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인문독서프로그램이 펼쳐지기도 한다. 인형극으로 즐겁게 웃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다. 물론 책을 읽거나 대출할 수도 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교육단지에는 창원도서관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창원도서관은 1983년 경남도립도서관으로 개관해 지금까지 35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았으며, 시민이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도서 32만6600여 권, 비도서 2만9200여 점을 보유해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 책 읽는 경남을 만들어 갑니다

책 읽는 경남을 만드는 데 창원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 진행된 ‘경남 독서한마당’ 공모전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 독서한마당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창원도서관에서 주관하며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협력해서 진행되는 독서 행사로 도민의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사로 성장했다. 경남 독서한마당 선정 도서는 전국 도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기가 있고, 한 해 응모작이 5만 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행사다.

창원도서관은 책 읽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학교 도서관 컨설팅도 맡고 있다. 학교 도서관은 전담 사서가 없는 곳이 많아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창원도서관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경상남도교육청 북버스를 통해 창원, 거제, 통영, 함안, 고성에 있는 작은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가기도 한다. 도서관이 없거나 독서 문화가 부족한 곳을 찾아가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다.

“ 책 읽는 경남을 만드는 데 창원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 진행된 ‘경남 독서한마당’ 공모전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 독서한마당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창원도서관에서 주관하며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협력해서 진행되는 독서 행사로 도민의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사로 성장했다.”

### 청소년의 독서를 위한 징검다리

창원도서관 황현경 문헌정보과장은 창원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꼽는다.

“사실 어릴 때는 책 읽는 습관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점차 공부에 밀려 독서가 주춤해져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고 독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창원도서관에서는 청소년 대상 일일독서캠프나 청소년재능기부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찾는 경험을 쌓아 주고 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책이랑 과학이랑’, ‘책이랑 영어랑’, ‘책과 함께하는 창의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봉사활동 점수도 얻을 수 있는 데다, 도서관과 친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또 자유학기제 연계 특강과 교과와 연계한 방학 프로그램도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으는 효자 프로그램이다.





“ 답은 책 속에 있고, 책은 도서관에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많아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도  
 많아진 지금, 책만 읽으러  
 도서관에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보러, 배우러, 들으러, 놀러  
 창원도서관에 가 보자. ”

### 답은 책 속에 있고, 책은 도서관에 있다

창원도서관은 공부하는 도서관(Study), 함께하는 도서관(Together), 즐거운 도서관(Amazing), 책 읽는 도서관(Reading)을 실천하며 ‘당신을 위한 STAR’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부하는 도서관’을 위해 온라인 학습과 독서 동아리 및 평생학습 동아리 등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인문학 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폭을 넓혀 준다.

경남금빛평생교육봉사단과 아름봉사단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고 있다.

또 ‘즐거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토요 책동산, 동화인형극, 책읽는 타요버스 등 다양한 독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책 읽는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찾아온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책 한 권 꺼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독후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있다.

답은 책 속에 있고, 책은 도서관에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많아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도 많아진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가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보러, 배우러, 들으러, 놀러 창원도서관에 가 보자.

글 김규남 기자·사진 김정민 작가



하동 옥종초등학교 도서관

## 마음의 양식을 먹는 곳

하동 옥종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독서를 빠짐없이 먹는 옥종가족이 있다. '마음의 양식을 먹는 곳'이란 이정표를 따라가면 1층에 자리 잡은 도서관을 만난다.

###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 독서프로그램 등 운영

인문학 책쓰기 동아리, 오늘도 책읽어 주세요, 학교도서관 우수 독서 프로그램 학부모 독서동아리 자체 운영 등으로 이어오고 있다.

옥종초 도서관은 2016년 '도서관 노후시설개선사업과 겨울방학 독서캠프'에 선정, 2017년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 독서프로그램, 오늘도 책읽어 주세요 프로그램, 학부모 독서동아리 북적북적(Book積 Book積)을 운영해 왔다.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 독서프로그램은 신나는 전래놀이, 오물조물 오감만족, 나도 시인되기, 꿈꾸는 북아트, 가면 놀이로 들여다본 내 모습, 책속 소품 만들기, 태양계 북아트, 나도 요리사 등으로 구성했다.

## “ 이곳은

신기하고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이려진(옥종초 3)  
 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강경림(옥종초 3)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이다. 조재준(옥종초 3)  
 나의 삶과 같은 곳이다. 하석현(옥종초3)  
 조용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다. 김수지(옥종초 3) ”



### 올해에도 학부모 독서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인문학 책쓰기 동아리(별글 Making), 오늘도 책읽어 주세요(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20분), 학교도서관 우수 독서 프로그램(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 학부모 독서동아리 자체 운영 등 학교도서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서관 활용과 독서공모사업 진행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독서관련 특강 때 옥종면 초·중·고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조문을 전달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독서 활동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평생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도서관 담당교사

###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

옥종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도서관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에게 애쓰고 있다. 김태세 교장은 “잘된 일이나 경사와 같이 마음에 내거는 현수막처럼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동기유발을 위해 달마다 다독학생 수상자, 독서기록장 수상자의 이름을 현수막에 인쇄해 교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며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던 학생들이 저녁에 부모님을 모셔와 자신의 이름이 걸린 현수막을 가리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러한 현수막 작업을 학교의 전통으로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 독서기록장에 그려 넣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옥종초 도서관은 늘 학생들로 붐빈다. 이곳에서는 학생 모두가 도서관장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 독서기록장에 단 한 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독서기록장 한 장 한 장 채워지는 것이 글자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한 학생이 독서기록장에 정성스레 꿈과 미래를 그려 넣고 있다. 그 그림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글 이재성 시인·사진 고병완 작가



양산 서창중학교 책벗마루 도서관

## 학교 카페에서 책 한 잔 어때요?

양산 서창중학교 2층에 가면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꾸며진 도서관이 있다. 책벗마루 도서관은 누구나 책 한 권 빼 읽을 수 있는 책 놀이터요, 책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다. 향긋한 코코아는 없지만, 씩씩한 커피는 없지만 학생들은 카페에서 책 한 잔을 마신다.

### 도서관이 학생들 곁으로 왔다

책벗마루 도서관에 가면 사서교사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원하는 책을 찾아주고 좋은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책에 관심이 없던 아이도 도서관 한편에 꽂힌 학습만화를 보면서 책 읽기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갈 곳이 없어 왔다가 서가를 구경하며 책 한 권을 뽑아들기도 한다.

서창중 책벗마루 도서관은 지난 2006년 개관해 지난 해까지 학교 5층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3학년이 5층을 쓰는 해에는 3학년 이용자가 많고, 1학년이 5층을 쓰는 해에는 1학년 이용자가 많은 식이었다.

여수진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쉽게 찾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요즘은 책을 정말 좋아해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도서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5층에 있던 도서관을 2층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새로 지은 도서관은 ‘카페 같은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다. 도서관이 2층으로 가까이 내려오고 분위기도 좋아지다 보니 이제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아이들이 몰려든다.

###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든다

여수진 사서교사는 다른 학교 도서관처럼 책 보러 오는 학생을 맞이해 주고 대출을 해 주는 업무만 해도 되지만, 굳이 ‘사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책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그동안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서창중 도서관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독서마라톤’이다. 독서마라톤은 독서활동을 마라톤에 접목시켜 1m를 책 1쪽으로 환산해 각자 설정한 목표 독서량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50여 명의 학생



들이 완주에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또 해마다 신입생 교육으로 독서를 유도하고 경남독서종합지원시스템 가입으로 다양한 독후활동 생활화를 돕고 있다.

여수진 사서교사는 “저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저를 한 번도 못보고 졸업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마다 도서관 이용 교육만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도서관 사서교사와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또 서창중 도서관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여름방학 북아트교실을 열어 학생들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캘리그래피 교실을 열어 책 표지와 책 속 문구를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 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책벗 학부모독서회를 운영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전교생이 함께하는 아침 독서시간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돕는다.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이면 좋겠고, 멋진 분위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 바로 여기 책벗마루 도서관처럼...

글 서울 기자·사진 김정민 작가



## 2018. 유공교원 해외 교육문화체험 연수기 ①서유럽

# 많은 것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경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교육 전문직 40명은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 서유럽 3개국(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을 방문하는 ‘2018 유공교원 해외 교육문화체험 연수’를 떠났다. 특히 교육기관 탐방으로 각 나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었으며, 문화체험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 프랑스 탐방

프랑스는 대학 진학 시 진로결정은 바칼로레아 성적이 좌우한다. 원칙적으로 바칼로레아 소지자는 어떠한 시험이나 경쟁 없이 자유로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바칼로레아의 종류, 성적 등이 대학 입학 시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Villenauxe la Grande 구청교육부 = 프랑스의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인 6세부터 의무이다. 하지만 유치원이 지방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3세 정도에 유치원을 보낸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콜레주(collège) 4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리세(lycée) 3년으로 이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는다.

고등교육인 대학교는 작은 규모, 다목적 규율로 다양화된 것이 특징이고, 국영이라서 공학계와 몇몇 경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료가 적게 든다. 대개 5년 내 석사학위를 받는 데 750~2000유로 정도가 든다고 한다.

### 스위스 탐방

▶ 스위스는 초등 5년, 중등 3년은 의무교육과정이다. 고교과정 3년을 마치고 ‘Matura’라는 고교졸업 자격시험을 거쳐 졸업한다.

▶ 16~21세 연령층의 6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혼합한 직업교육을 받는다. 스위스는 직업학교 학생들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어 일주일에 절반은 학교에서, 나머지는 기업에서 일을 배우게 된다. 스위스는 이 도제시스템이 매우 유명하다.



## 이탈리아 탐방

Istituto degli Innocenti = 어린이 보호에 전념하는 가장 오래된 이탈리아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1445년 2월 5일, 이곳에서 버려진 작은 아가타 스메랄다(Agata Smeralda)가 접수된 날부터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회사(ASP)이다.

하는 일은 연구, 정책 모니터링, 문서화, 교육, 심리, 사회, 보건, 법률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 및 전문성 향상 등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문서 분석 센터, 지역 문서 센터의 문서화와 모니터링 활동을 관리하고 많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Centro Estivo Tutoring Summer Camp = 유럽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에 학교를 대신하여 방과후 학습 개념으로 여름캠프를 떠난다.

과정은 요가, 미술, 영어 등 외국어 수업, 예술,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를 대신하여 도서관, 박물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과후 학교와 개념이 비슷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이뤄지는 반면, 이 캠프는 학교와는 별개이다.

시(시청)가 주체가 되고 사설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학교를 섭외하기는 힘들다.



### 맺음말

짧은 연수였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져 즐겁게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찾아보며 연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배움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박유란(김해 진영 금병초등학교 교사), 박범(창원 온천초등학교 교사)

이호철(사천 용현초등학교 교사), 박민석(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교사)

강민경(양산고등학교 교사)



2018. 유공교원 해외 교육문화체험 연수기 ② 동유럽

## 이론과 현장실습 병행 ‘이중교육’ 눈길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 교원 40명은 동유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5개국 교육 기관을 방문했다. 연수 목적은 동유럽 교육 관련 제도, 문화, 역사교육 등을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접목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 폴란드 탐방

폴란드에서는 크라카우 교육감과 부교육감, 수석교사를 초청하여 기관과 폴란드 교육 특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크라카우 교육감은 폴란드와 유사한 아픔을 가진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오시비엠크) 강제수용소는 현재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나치 만행에 대한 교육 내용은 독일과 함께 연구해 독일 역사교과서에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크라카우 국제학교(SK)는 Early Years에서부터 High School까지 교육하는 곳으로 학생 매년 인격 형성을 중시한다. 예술과 체육활동을 강조하며 폴란드어를 비롯한 영어, 독어와 불어를 가르친다. 국제학교 특성상 30개국 출신 학생이 재학 중이며 10개국 출신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해마다 30% 정도 비율로 학생과 교사가 바뀐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요구사항과 필요를 재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와 상담이 활발하며 학부모 참여도가 높다.



## 오스트리아 탐방

오스트리아에서는 한인 학부모(38·워킹맘)와 학생(초등 4학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가족은 2004년 이곳에 왔으며, 현재 학생은 김나지움에 진학할 예정이라 졸업 시험을 치른 상태이고,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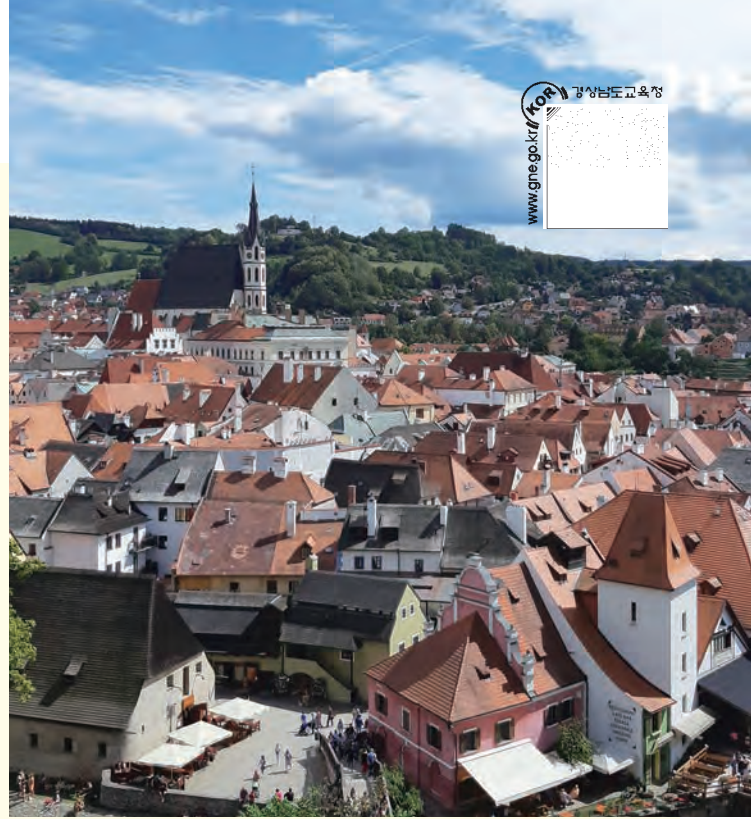
**Q : 김나지움 진학을 위한 마투라(Matura)는 무엇인가요?**

**A :** 오스트리아에서 성적 평가를 ‘1, 2, 3, 4, 5’(한국의 ‘수, 우, 미, 양, 가’)로 나타낸다. 초등학교 졸업(4학년)을 앞둔 3학년 때 지금까지 성적에 ‘5’는 없는지 살펴보고, ‘1’과 ‘2’의 정도를 보고 담임교사와 상담 후 인문계 중학교와 실업계 중학교 중에서 어디로 진학할 것인지 결정한다.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10%가량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항상 의견이 바뀌면 계열을 변경할 기회가 주어진다.

**Q : 오스트리아 교사들의 교권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A :** 1년에 2~3회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교사 1명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교사의 관찰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학부모는 신뢰하고 존중한다. 또한 한국에는 없는 초등학교 유예도 있다. 교사가 판단해 진급을 유예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사의 의견에 따르고, 여러 구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유급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10대의 약 40%가 의무교육 이수 후 즉시 도제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 직업교육 시스템 중 눈에 띄는 특징은 법정 의무교육이 끝나는 9학년(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직업학교에 진학할 경우, 이론과 현장 실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교육 체제를 통해 특정 분야 전문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체코 탐방

체코 프라하 1구역에 소속된 공립 초·중등학교는 현관에 학용품 자판기가 인상적이었다. 이 학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제공한다. 첫 번째 외국어는 3학년부터 주 5회 수업을 받고 6학년부터는 두 번째 외국어를 주 4회 습득한다. 외국어 학습은 독일이나 프랑스 문화 체험을 위한 외국 여행을 지원한다. 1~5급은 외국어를 2개 이상하며 독일, 프랑스 파트너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 1~2주가량 가족 단위 교류가 이루어지고 김나지움 진학이 가능하다. 6~9급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스키나 래프팅 등 여행을 하고 직업학교에 진학한다. 운동이나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개별 교육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맺음말

동유럽 나라들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선택까지 학교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를 통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피드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 교육과정을 구현해 수요자 중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연수를 떠나기 전 각국 교육에 대해 연찬한 것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교하며 체득한 교육관련 제도, 문화, 생활방식 등을 교육현장에 두루 접목하고자 한다.

전정희(창원 봉림중학교 교사), 이삼윤(의령 신반중학교 교사)



진주 신진초등학교 이창수 교사

## “토박이말을 잘 알아야 말글살이가 넉넉해지죠”

무언가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 적힌 칠판 앞에 별난 선생님이 수업중이다.

“안개보다는 물방울이 굵고, 비보다는 가는 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또 한 가지 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안개와 비 사이 토박이말 ‘능개’가 있습니다. ‘늘어진’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늘어진 안개’라고 해서 ‘능개’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을 자세히 관찰한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죠. 선조들은 비도 아닌 것이 안개도 아닌 것이 축 늘어진 모양을 닮은 날씨를 능개라고 표현했답니다. 이렇게 관찰과 여러 가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토박이말 어때요? 알고 나니 이해가 되고 참 쉽죠?”

익숙하지 않아 아리송아리송하지만 이해가 되는 신기한 우리말. 진주 신진초등학교에서 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과학전담·교무부장) 교사를 만났다.

### 학생들도 반기며 “토박이말 많이 알려 주세요”

이창수 교사는 토박이말에 대해 “사전에 나와 있듯이 고유어입니다. 사투리가 아닙니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토박이라고 하는데 고유어와 같은 말입니다. 토박이말의 반대말은 ‘들어온 말’입니다. 바로 외래어입니다. 들어온 말이 아닌 것들이 토박이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겨레가 옛날부터 손수 우리끼리 만들어 써온 말과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 토박이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낯설고 모르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한 번 뜻을 들어보면 금방 이해되고 쉽게 알아채고 신기해했다. 무엇보다도 토박이말을 배우면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이었다. 이제는 학생들이 더욱 반기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많이 알려 달라고 말한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다며 직접 말들을 찾아와 알려 달라고 이야기한다.

“토박이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선조들이 관찰과 경험으로 말을 지어서 그런지 한자어보다 더 뜻도 알기 쉽고 편해요.” (5학년 이민하)

### 토박이말은 삶과 생각의 바탕이 되는 말

이 교사는 “여벌옷이라는 말도 토박이말은 ‘갈음옷’인데 ‘갈아입는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벌옷은 남은 옷이라는 뜻인데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아입는 옷인 갈음옷은 이해하기 훨씬 편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박이말은 우리 삶의 바탕이자 생각의 바탕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을 꾸며도 튼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토박이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박이말을 알고 그다음 외래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전에 영어를 먼저 해야 된다면 배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 “토박이말 함께 배우는 교육과정 생겼으면...”

단어를 알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삶과 말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간단한 것만 찾고 있다.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머릿속에 사전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말들을 배우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글로 쓰거나 말하려고 해도 말이 떠오르지 않아 글 하나 제대로 적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학생들이 줄임말 혹은 외계어를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두고 뭐라 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 교사.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우리말이 어떤 건지 우리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교육과정에도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토박이말을 가지고 말의 짜임, 즉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교육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박이말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잘 쓰게 하여 넉넉한 말글살이를 즐기는 참으로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마음, 슬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는 (사)토박이말바라기 상임이사를 맡아 활동을 겸하고 있다.

우리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토박이말을 함께 배우는 교과서와 학습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의 꿈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서울 기자·사진 김정민 작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모임

## 20여년 전 ‘환생교’를 만나 환경교육에 푹 빠진 선생님

창원 삼계중학교 윤병열 교사

창원 삼계중학교에 새들의 지저귀음이 요란하다.  
나무가 제법 우거진 화단 한쪽에서는 윤병열 교사가 “지금 날아든 저건 딱새고,  
직박구리도 여기 둥지를 틀었고, 곤줄박이랑 동박새도 볼 수 있고...”라며  
새 이름을 낱낱이 읊는다. 교내 인기스타를 알아본 학생들이 인사를 하자 윤 교사는 손을 흔들어 답한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려 모두들 교실로 돌아갈 때, 윤병열 교사를 따라가 봤다.





### 자투리 시간에 듣는 환경교육

윤 교사는 사회과목을 맡고 있다. 교과과정만큼이나 그가 신경 쓰는 건 환경교육이다. 인간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자연환경이기에 환경교육 중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느끼고 있다.

“사회과목은 역사, 일반사회, 도덕입니다. 저는 올해 역사를 가르치는데, 다른 두 과목과 다르게 환경과 관련된 단원이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례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을 만나면 관련 사진을 보여주거나, 계절에 따라 꽃피는 봄이면 야생화 군락으로, 단풍드는 가을이면 350년이나 된 은행나무로 이끈다.

2학년 김서준 학생은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재밌고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학교 안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셔서 좋아요”라고 말한다.

재미와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 자투리 시간의 효과가 톡톡히 발휘되는 셈이다. 덩으로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인기도 높아 윤 교사에겐 ‘짱구’처럼 애칭 별명도 몇 개 생겼다.



### 선생님은 우리 동네 ‘탐험가’

학생들은 “선생님은 어디로든 여행가요, 우리 동네 탐험가예요”라고 입을 모은다. 윤 교사는 제비생태탐구동아리 인솔교사로서 해마다 봄철이면 제비를 찾아 이 동네 저 동네로 아이들을 데려간다. 조류는 상위포식자로서 지역의 생태 환경을 알려주는 지표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올해는 아쉽게도 활동을 못했다. “내서 지역에 제비가 사라졌더라고요. 제비집은 있는데 사는 제비는 없고... 제비 탐사활동을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엔 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비가 왜 떠났을까? 윤 교사가 환경교육에 힘쓰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의 탐욕이 또 다른 파괴를 불러오지 않도록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 제비생태탐구 동아리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모임(환생교)’은 윤 교사처럼 환경에 관심 있는 전국 5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환경교육 중요성을 알게 됐고, 20여 년 전에 ‘환생교’를 만난 뒤부터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환생교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학교 안에 작은 생태계인 연못을 만들거나 ‘녹색커튼’이라 불리는 제비콩을 길러 벽에 펼치는 등 생태환경이 좋은 학교로 바꾼다. 두 번째는 제비생태탐구 동아리처럼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탐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윤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진동 갯벌 생태학습을 가기도 했다. 환생교는 그 밖에 학교 텃밭 가꾸기, 야생 동식물 관찰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교육을 하고 있다.





###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존중'

윤 교사가 환경교육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생명존중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 동지를 튼 새가 보금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 과정을 같이 관찰하면서 생명존중정신을 배우게 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존중은 인간과 환경 사이만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해당된다.

“생명을 보여주고 그 예쁨을 나누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면 매일 애들 데리고 논다고 하지만요. 생명존중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커서 보니까 기억난다’는 말을 하면 좋겠네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거창하게 얘기하면 지구환경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윤 교사는 재밌고 즐거운 수업에서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은 교과서 속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교과서 밖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글 정재흔 기자·사진 김정민 작가



통영 총렬여고 '디자인공모전 동아리'

## 동피랑 벽화에 꿈을 디자인하다

통영 동쪽 벼랑을 오른다. 남망산 조각공원과 마주보는 봉긋한 언덕배기에 '동피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동피랑은 '동쪽 피랑(비탈)'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구불구불한 옛날 골목마다 예쁜 벽화가 있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다. 이곳에서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6회 동피랑 벽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동피랑 골목 곳곳에 개인 또는 단체로 일반인과 전문가로 선정된 팀들이 벽화를 그리느라 분주하다.

그 풍경 속 섬세한 손길로 벽화를 그리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이 보인다. 통영 총렬여자고등학교 '디자인공모전 동아리' 학생들이다. 페인트를 묻힌 붓을 들어 정성스레 그려 나가는 벽화 앞에 사뭇 진지하다가도 저마다 소곤거림이 동피랑에 퍼진다.

### 동피랑 벽화축제 참가 '랑이의 하루' 그려

동피랑 여러 입구 중 한곳인 게스트하우스 벽면에 총렬여고 '디자인공모전 동아리' 학생들의 작품 '랑이의 하루'가 채워지고 있다.

'랑이의 하루'는 동피랑의 '랑'과 '고양이'를 모티프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하루를 의인화해 표현한 작품이다. 키스 해링의 작품과 카툰을 접목시켜 친근감을 주면서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벽화 디자인이다.

특히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고양이를 좋아한다는데 그 마음도 함께 담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캐릭터 디자인을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는다. 동피랑의 수많은 벽화 중 하나로 앞으로 2년 동안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선사할 듯하다.

“벽화 작업은 인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인원이 많으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려요. 저희 디자인공모전 동아리는 1, 2학년 27명, 3학년 8명이에요. 이번 동피랑 벽화 작업은 동아리 지도교사의 추천과 제안을 받아 준비했어요. 구성원들이 직접 손으로 도안을 하고, 그중에 멋진 작품을 골라 신청했어요.” -김예진(동아리장·총렬여고 2)

“벽화를 그리는 일이 재미있어요. 힘든 일도 있지만 하다 보면 재밌고 다 마치고 사진 찍을 땀 뿌듯함을 느껴요. 동피랑 벽화 작업은 처음인데 이곳에 놀러올 때마다 벽화 구경만 했는데 제가 지금 직접 그리고 있으니까 새롭고 신기해요.” -박민음(총렬여고 2)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며 쌓아가는 꿈

10년째 총렬여고 디자인공모전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홍도순(사회) 교사는 “시험기간 때문에 그동안 동피랑 벽화축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벽화축제는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아 참가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에겐 학업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홍 교사는 “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 자신의 꿈을 향한 경험이 조금씩 쌓여 그 꿈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꿈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총렬여고 디자인공모전 동아리는 벽화 작업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컵 디자인을 기획해 텀블러를 만들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동피랑 벽화 작업 같은 장소기반 학습을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디자인에 있다’고 믿는다.







부지런한 손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동안 그 과정을 알아가는 학생들. 반짝이는 그들의 꿈 하나하나가 벽화에 담겨지는 것일까.



### 동피랑 벽화에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도 담겨

작업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는 게 행복하다는 학생들 앞에 어느새 한쪽 벽면 페인트가 말라가고 있다. 부지런한 손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동안 그 과정을 알아가는 학생들. 반짝이는 그들의 꿈 하나하나가 벽화에 담겨지는 것일까.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물감으로 찍어 그린 듯한 벽화 앞에 다 함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오늘. 그들의 소중한 추억도 동피랑에 그려지고 있다.

글 이재성 시인·사진 김정민 작가



# 합천 대병중학교 만학도 신애자 씨 중학 1학년 77세 할머니의 꿈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상대적인 시간이 있다. 합천 대병중학교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이 만나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교실이 있다.

14년을 살아온 28명과 77년을 살아온 1명이 모여 29명인 1학년 1반 학생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들 사이 스쳐 지나가면 누군지 모를 소녀 한 명이 인사를 건넨다.  
“합천 대병중학교 1학년 1반 신애자입니다.”



##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16살에 겨우 초등학교 졸업

신애자(77) 씨는 “시간이 야속하게도 흘러버렸다”고 말했다. 눈 깜빡하는 사이 지나가버리는 순간들. 되돌아보면 인생 굴곡 많았지만 단 한 가지 못 다 한 꿈이 있었다. 바로 공부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16살에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보내 주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도 가난했기에 일터에 나가는 것이 먼저였다. 어린 나이 시집을 갔지만 집안을 떠어 살리는 일도 자신의 몫이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군밤장사를 시작으로 안 해본 곳은 일이 없다는 그는 자신의 꿈을 자식들로부터 실현했다. 4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업 갈망은 쉽게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 검정고시는 할 자신이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프로그램에 만학도 이야기가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친김에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찾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합천 대병중학교였다. 현재 그는 학교 근처 마을에 작은 방을 얻어 등교하고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중략... /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 사무엘 울만 '청춘' 중에서



“어서 공부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거예요”

신 씨는 학교생활을 하며 느꼈던 소회와 마음속에 담아 둔 새로운 꿈도 털어놓았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내 삶에 이렇게 즐거운 적이 있었던가 되묻곤 해요. 잃어버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글자를 한 자 한 자 아는 것도, 영어도, 수학도 모든 것이 새롭고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시도 써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요.

또 모든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한 학생은 편지를 써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달라고 했어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 걱정은 한 가지예요. 바로 건강이에요.

이 행복한 순간을 다시 잃어버릴까 걱정이거든요. 어서 공부를 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거예요.”





### 학생들도 ‘할머니’와 함께하며 많은 점 배워

1학년 1반 담임인 변채원 교사는 “신애자 할머니는 대병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지 1년도 안됐지만 학교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며 “학생들은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고 귀띔해 준다.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니세요. 어머니와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많아요. 아마도 저보다 성적이 더 좋을 거예요.”(1학년 박민상)

“입학식 때 처음 뵈는데 저 연세에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어요.”(1학년 권세영)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른 공경을 위해 예의범절을 스스로 잘 하게 돼요.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1학년 배민제)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좋아요.”(1학년 윤다경)

### 꿈이 이뤄지는 과정이기에 발걸음도 가벼워

신 씨는 학생들에게 “지금은 힘들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바라는 곳을 향해 나아갔으면 해요.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당부의 말을 전한다.

수업 종이 다시 울리고 교실로 향하는 신 씨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원하던 꿈이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춘의 마음가짐을 간직한 할머니의 앞날에 예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란다.

창원 석동중학교 1학년 김병욱 학생 가정

##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며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집**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못하는 게 없는 창원 석동중학교 1학년 김병욱(14) 학생은 요즘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래퍼를 꿈꿨지만, 교내 배구스포츠클럽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아빠 김주환 씨와 엄마 엔다 와유 씨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의 '도전 DNA'를 물려준 부모답게 "아이가 뭐든 도전하고 싶어 한다면 뒷바라지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의 응원법이 궁금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김병욱 학생의 집을 찾아갔다.



###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한국으로 온 가족

어스름이 깔린 저녁시간,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 리더십이 강하고 진중한 아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엄마는 성격이 비슷한 듯 달라 종종 아웅다웅 다룬다. 경기장 코트 위의 공처럼 식탁 위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가 빠른 랠리로 이어진다.

건설회사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환 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파견 근무 나갔을 때, 인도네시아어를 배웠다. 같은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엔다 씨는 영어를 한국의 유치원과 학원에서 가르칠 만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두 사람의 성격을 골고루 물려받아 진중하지만 활동적인 아들 병욱이가 한국어로 나지막이 추임새를 던진다. “엄마, 아빠 서로 좀 이해해요.”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서운함이 풀어진 다. 평화를 되찾은 가족은 이내 거실에서 보드게임 한 판을 벌인다. 아들과 남편의 대결을 지켜보던 엔다 씨가 “지금처럼만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며 하하 웃는다.

### 엄마 '엔다'의 한국생활 적응 비결은 가족의 힘

엔다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웃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에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했다. 나중에는 부부를 응원했지만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아이가 세 살이 됐을 땐,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를 떠나 떠나면 한국으로 왔다. 밝고 쾌활한 엔다 씨였지만, 지난 2007년 한국은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니었다.

먼저 언어부터 달랐다. “문화센터에서도 배웠고 동네



할머니들하고 ‘오늘 뭐하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더 잘 따라하게 됐어요. 4년 정도 걸렸네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부모님 같아서 눈물 보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주환 씨는 아내가 언어보다도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그때만 해도 농촌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분들도 낯선 땅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굳은 각오로 도전을 시작한 건데... 아내가 그분들을 위해 문화센터에서 강사도 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고 그래서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됐죠.”

엔다 씨는 처음엔 주변 사람들과 말이 통해도 생각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돕는 통역활동에 전념했다.



김주환 씨는 그런 아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를 선물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탰다. 남편의 지원에 힘입어 엔다 씨는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 노인대학, 유치원, 학원 등 다방면의 교육활동에서 양 문화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원에서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을 개업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쪼개 여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엔다 씨를 응원한다. “엄마는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서 좋아요. 제게 파이팅 하자는 말을 자주 해주는데, 엄마도 파이팅이에요!” 아들 병욱이의 힘찬 응원이다.

### 이해와 배려 가정교육으로 건강하게 성장

부부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서툰 부분을 이해하니 자연스럽게 어렸던 병욱이는 부모를 닮아갔다. 세 살 때부터 처음 접하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려 애썼다. 유치원에서 첫 도전은 ‘한국말만 쓰기’였다. 언어가 서툴러 친구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 영어로 대화하는데 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한국어로 대답해요. 자기는 한국사람이라면서요. 학교 영어 성적이 높은 걸 보면 영어를 잊었다기보다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병욱이는 그런 자기 노력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지금은 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 잘 차는 친구’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해와 배려를 가르친 가정교육 덕분에 남들 다 겪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아직 오지 않았다. 엔다 씨가 도리어 “너 사춘기였어?”라고 물을 정도다.

김주환 씨와 엔다 씨 부부는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단지 선택지를 넓혀줄 뿐이다. 부부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알아서인지 병욱이는 “사춘기는 제가 미래를 선택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부부는 “너는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며 음악부터 체육, 공부 등 하고 싶다는 것은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배구선수라는 장래희망도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꿈이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도전의 길은 늘 열려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꿈을 키워 가는 병욱이네 가정의 행복한 도전을 응원한다.

글 정재훈 기자·사진 고병완 작가



# 당신은 '인싸' 입니까, '아싸' 입니까

## 고성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체' 이야기

급식을 먹는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하는 '급식체'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새 말을 만들어 쓰는가 하면 모음은 버린 채 초성만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집단 밖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집단 안에서는 '쉽고 재미있어서' 쓴다는 그들만의 은어. 이제 급식체는 그들만의 문화를 넘어 상품명, 광고, 개그 소재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여기 급식체를 써야 '인싸'로 인정받는다든 초등학교생과 급식을 먹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급식체를 들어 봤거나 써 본 적 있는 부모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인싸** : 인사이다, 우리 안의 사람을 말함. 급식체를 잘 쓰고 잘 어울리는 사람.  
**아싸** : 아웃사이다. 급식체를 쓰지 않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 1 딸 김원경(초 6)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급식체를 잘 쓰지만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잘 가려 쓸 줄 안다. 급식체를 알아듣는 어른을 만나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쁘다.

### 2 엄마 유현정(40)

원경이와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을 키우고 있다. 지나치게 축약하고 모음을 탈락시키고 초성만 쓰는 급식체를 보면서 1학년 아이의 한글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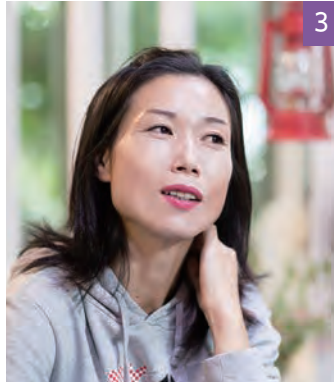


### 3 엄마 주연정(39)

초등생 딸 위로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 급식체에 익숙해져 있다. 민주와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급식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다.

### 4 딸 권민주(초 6)

엄마와 급식체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다. 급식체를 쓰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안 쓰려고 노력한다.





## Q 급식체, 얼마나 쓰고 있을까

- A** **주연정** 저는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이라 그런지 급식체를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저도 가끔 써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쓰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저도 가끔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급식체를 쓰기도 해요.
- 권민주(학생)** 엄마가 급식체를 쓰기도 하고 또 제가 말하면 잘 알아들으니까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편해요.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요.
- 김원경(학생)**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급식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긴 건 줄이고 초성만 쓰기도 하고요. 요즘엔 초성만 쓰지 모음까지 다 쓰는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유현정** 원경이가 급식체를 자주 쓴다고 하는데, 사실 집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 김원경(학생)** 아빠하고 문자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급식체를 쓰기도 하는데, 엄마는 급식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엄마와도 급식체로 대화하고 싶어요.
- 유현정** 제가 원래부터 줄임말도 잘 안 쓰거든요. 원경이가 서운하다고 하니 초등학교생들이 어떤 급식체를 사용하는지 배워서 대화해야겠어요.(웃음)



## Q 10대들이 급식체를 쓰는 진짜 이유

**A** **주연정** 왜 급식체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급식체를 쓰는 아이들을 보면 딱 아이들이 쓰니까 무의식적으로 따라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종의 유행 아닐까요?

**유현정** 제 생각에는 편하니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친구는 다 알아듣겠지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마음 편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원경(학생)** 급식체를 쓰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급식체를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대화가 딱딱해지고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권민주(학생)** 맞아요. 급식체로 말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쉽게 친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인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원경(학생)** 우리끼리 급식체 쓰면 아씨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진실게임 하고 싶어서 '진게'하자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진지한 게임 하자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권민주(학생)** 어른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재밌기도 하고요.

## Q 급식체, 이대로 괜찮을까

- A 주연정**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더니 제품명이 급식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급식체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당황했어요. 그런걸 보면 언어 파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유현정** 급식체를 써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점이나, 이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지나친 급식체를 접하면 혼란스러울까 염려됩니다.
- 주연정** 세종대왕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아이들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데 굳이 못쓰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도 그중에선 쓰지 말았으면 하는 말들도 분명히 있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요.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 기분이 나쁘겠다는 생각이 들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배려의 문제인데,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죠.
- 유현정** 급식체를 단지 아이들이 “좋아서... 편해서...”라는 이유로 사용한다면야 문제없겠지만, 욕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한다든지, 남을 비방하는 말 등으로 사용할 때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민주(학생)** 저도 세종대왕이 6학년 교실에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내가 급식체를 쓰고는 있지만 유행 따라 쓰는 건데,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말을 썼을 때만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 해 주면 좋겠어요.
- 김원경(학생)** 가끔 급식체라기보다는 욕을 더 많이 쓰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건 우리가 보기에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급식체는 단어를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변화시켜서 재밌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게 해 주면 좋겠어요.

정리 김규남 기자·사진 김정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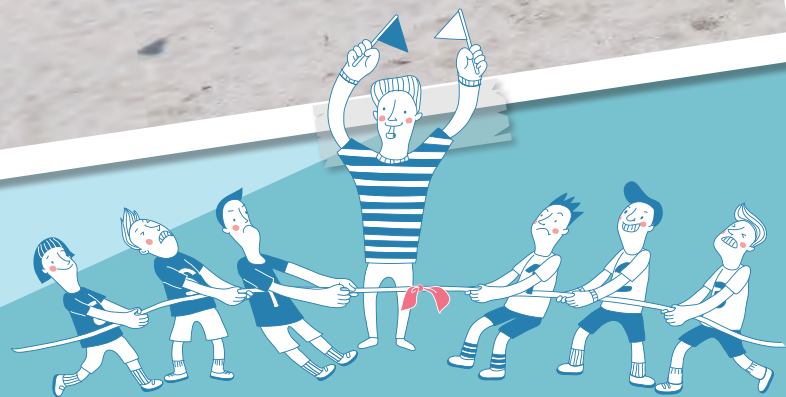
응답하라 세대공감

# 학예발표회

학예발표회 때면 무대를 준비하고  
각양각색 색종이로 교실과 강당을  
꾸미고, 부지런히 교실바닥에  
초칠을 했다.

학예발표회와 함께했던 운동회는  
리코더,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  
악기 소리를 모으고,  
양증맞은 몸짓을 서로 맞추는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시인이나 화가가 되어  
시화 한 편과 그림 한 편을 만들고,  
교실과 복도 곳곳에 내걸었다.



**만국기가 펄럭이던  
그날의 운동회도  
한 달여를 준비한  
화려한 부채춤과  
리듬운동, 꼭두각시 춤  
발표회를 시작으로  
운동회가 열렸다.**

어릴 적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기간이었던 걸로 어렵פות이 기억이 난다.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은 듯 느껴지지만 어느새 세 아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철부지 어린이가 엄마가 되어 옛 기억을 소환하자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푸덕푸덕 몸짓을 지어보던 춤 발표와 피꼬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질러 보던 합창, 그리고 합주,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한 소리로 잠깐의 시간을 위해 숨죽였던 날이 되새겨지며 “그랬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씨익 입꼬리가 올라가는 미소가 지어진다.

시골 작은 학교이긴 하지만 100여 년 역사를 가진 학교에서는 운동회 날이면 꽤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누볐다. 만국기가 펄럭이던 그날의 운동회도 한 달여를 준비한 화려한 부채춤과 리듬운동, 꼬마 신랑과 색시가 짝을 지어 춤을 추는 꼭두각시 춤 발표회를 시작으로 운동회가 열렸다.

요즘 운동회와 사뭇 다른 학예발표회와 함께했던 나의 유년시절 운동회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 즈음 리코더, 트라이앵글, 멜로디언, 탬버린 등 악기 소리를 모으고, 양증맞은 몸짓을 서로 맞추는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학예발표회 때면 늘 친구들과 선생님은 손수 무대를 준비하고 종이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며 각양각색 색종이로 교실과 강당을 꾸미고, 부지런히 교실바닥에 초칠을 하고 창문을 닦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라면  
내 딸은, 내 아들은 언제  
나오나 눈이 빠져라  
무대를 바라보고,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함께 내 아들, 딸인 양,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

또 모두가 시인이자 화가가 되어 시화 한 편과 희망을 담은 그림 한 편을 만들고, 이것들을 교실과 복도 곳곳에 걸었으며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느 유명한 갤러리 거닐 듯 작품 감상을 하였다.

그날의 멋진 배우, 시인과 화가였던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고, 그들 또한 다음 세대의 재능을 지켜보며 그날을 추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어린 시절 학예발표회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엄마들의 아기 낳는 이야기'만큼이나 소소한 이야기거리임은 분명한 듯하다.

지금은 화려한 조명과 귀를 찌렁찌렁하게 하는 음향이 있는, 21세기를 넘어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기술이 동원된 학예회를 즐긴다.

더 넓고 높은 체육관에서, 현악과 관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가 하면 더 다양화되고, 더 세련미와 완벽함을 갖춘 아이들의 모습은 사뭇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포스를 내기도 하는 것 같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라면 내 딸은, 내 아들은 언제 나오나 눈이 빠져라 무대를 바라보고,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함께 내 아들, 딸인 양,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 내 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게다.

내가 자라던 그때는 카메라도 그리 흔치 않았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평생학습축제라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학예회가  
더 기대 되기도 한다.**

사람을 보면 “우리 아도 좀 찍어 주이소~!”라는 말만 해도 시골 학교의 3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누구 집 아이인지, 누구 동생인지 다 알아채는 신기한 일도 이제는 즐거운 에피소드가 되었다.

아, 한결같은 학예회 모습이 또 있다. 바로 선생님이다. 꼭 자기만 순서가 코앞인데 화장실 간다는 아이, 박자 놓쳐서 무대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아이를 챙기고 긴장한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아이들만큼이나 바쁘게 움직이던 선생님. 그때 나의 선생님 뒤편은 이제는 내 아이의 선생님 뒤편이 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 시절에는 학예회를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년에 한 번 하는 학예회, 운동회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격년으로 열리는 학예회, 운동회가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평생학습축제라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학예회가 더 기대되기도 한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무대에서 누군가는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의 소리는 계속 이어 갈 것이라.

글 이미란(거창 학부모네트워크)·사진 경남신문DB







양산 행복교육지구 '달빛공동체학교'

# 어스름 달빛 아래 공부하는 학부모의 눈동자가 빛난다

해 저무는 저녁 일곱 시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초등학교로 등교한다. 신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양산 행복교육지구 '달빛공동체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는 교육공동체 학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달라도 양산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든 학부모들의 배움 열망은 이렇게 저녁 어스름과 함께 시작된다.



### 학부모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기본 토대 마련

달빛공동체는 지역민(40명)을 대상으로 씨앗, 새싹, 잎새라는 3과정을 운영한다. 씨앗을 심고 새싹을 돋아나게 만들고 그 새싹이 잎새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씨앗과정**: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 교육을 품다 △21세기 미래는 놀이다 △자연과 친구 되는 생태놀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폭력 대화법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선진지 기행.

♣**새싹과정**: △우리 마을 협동조합이야기 △평생건강을 위한 침뜸 이야기 △자연과 친구 되는 생태놀이 △우리시대 민주주의 이야기 △독서토론 △선진지 기행.

♣**잎새과정**: 자율동아리로 진행 예정.

학부모 역량 강화와 마을교육과정으로 마을공동체 기본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쉬 없이 달려왔다.

▶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양산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양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에 '달빛공동체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마을동아리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에 관해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고민하다 낮에는 일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쉽지 않아 저녁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나더라도 아이들을 맡기고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탁아방과 학습공간을 제공해 마음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달빛이 드는 시간에 모여 달빛공동체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양산교육지청 행복교육지원센터 김만성 장학사



### 탁아방 있어 아이와 함께 와도 마음 편히 참가

오늘 프로그램은 독서토론이다.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박재동 외 1), '우리는 마을에 산다-마을공동체의 요람, 세대별 마을 공간'(유양우)를 읽고 와서 모둠별 토론이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마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 경험이 수록된 책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서토론에서 읽고 쓰고 말하기를 함으로써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열린 생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이해한다.

▶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탁아방이 있어 마음 놓고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저녁시간이지만 아이들도 이곳에 와서 또래 친구들과 놀 수 있어 좋아합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이가 자라봐야 알겠지만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노력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교육해 봐야겠어요.

- 양산 평산초등학교 학부모 이은진



▶ 저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다함께 마을을 운영하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이제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생활들이 많아서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를 듣고 좀 더 유익한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두레나 품앗이를 보고 자랐는데 요즘 그런 것이 사라진 게 안타깝고, 이웃을 모르고 지낸다는 게 아쉬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수업중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공동체에 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진 듯해요.

- 양산 대운초 학부모 변혜은



### 아이를 위해, 더 나아가 마을을 위해 주경야독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자 그믐달이 떴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딸아이의 질문에 하룻길 할 말 많은 엄마의 뒷모습을 달빛이 은은하게 비춘다. 바쁜 시간에도 짬 내어 밤 공부에 기꺼이 참가한 양산지역 학부모들. 이곳 달빛공동체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마을을 위해 오늘도 주경야독 중이다.

글 이재성 시인·사진 이윤상 작가



박경리 '문학의 고향' 하동과 통영

## 생명과 인간을 통찰한

## 문학 거장을 만나는 곳

발을 매던 거친 손은 흘러내려오는 백발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그의 손은 때로는 바늘을 잡았다가 펜을 잡기도 했고 다시 텃밭을 일궜다.

대하소설 '토지' 작가 박경리(1926~2008). 고향은 통영이고,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토지'의 산실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그의 문학 열정이 담긴 곳이다.

박경리는 1969년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해 1994년까지 26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16권으로 완성했다.

그중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와 최참판댁을 무대로 소설 1부가 펼쳐진다. 올해는 박경리 타계 10주 기다. 이 가을에 문학 거장의 흔적을 찾아 하동과 통영으로 문학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 하동 평사리 들녘에서 탄생한 대하소설 '토지'

하동읍에서 차를 타고 10분쯤 내달리면 악양면 평사리에 닿는다. 완만한 지리산 자락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260만㎡(83만평) 넓은 토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생명력 넘치는 이 너른 들녘을 모티프 삼아 우리나라 대표 소설 '토지'가 탄생했다.

박경리는 '토지' 집필 한두 해 전, 악양들녘을 스쳐 지나가다 '아, 이곳이다' 무릎을 쳤다고 한다. 특히 나고 자란 경상도의 사투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으리라.

하동에서는 지난 2016년 평사리 최참관댁 인근에 문을 연 박경리문학관을 볼 수 있다. 2016년 5월 평사리문학관을 박경리문학관으로 이름을 바꿔 자리를 옮긴 후 옛 평사리문학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것이다.

기와 한식 목구조로 된 문학관은 각 출판사가 발행한 소설 '토지' 전집, 초상화, 영상물, 국어사전, 안경, 책상, 재봉틀, 그리고 '토지' 속 인물지도 등을 전시하고 있다. 마당에는 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세미나실과 후배작가들의 집필공간 등을 더해 '문학&생명관'으로 거듭난 이후 다양한 문학행사로 독자와 지역민을 만나고 있다. 하동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10월에 전국의 문인들이 함께하는 '토지문학제'를 연다.







### 고향 통영에는 박경리 문학공원과 박경리기념관이...

통영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고장이다. 박경리는 고향 땅 별 잘 드는 미륵산 자락에 잠들어 있다. 통영시 신양읍에 있는 묘소 주위에는 박경리 문학공원과 함께 박경리기념관이 있다. 전시실에는 ‘김약국의 딸들’에 나오는 마을을 복원한 모형과 ‘토지’ 친필원고, 여권, 편지 등 유품이 있고, 영상실과 자료실, 세미나실을 운영하고 있다. 박경리의 생명사랑 정신을 직접 느끼고 사랑하는 교감과 소통의 장이다.

박경리 문학공원엔 그의 동상과 함께 ‘삶’ 등 시비가 곳곳에 있으며 소담스러운 야생화 홍접초가 눈길을 끈다. 묘소 뒤쪽과 옆쪽엔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있다. 올해 5월엔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그의 생명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제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고, 묘소 일원에서는 전국 백일장 대회가, 박경리기념관에서는 박경리문학 세미나가 열렸다. 1926년 통영 명정리에서 태어난 박경리는 1945년 진주여고를 졸업하고, 1955년 단편소설 ‘계산’과 1956년 단편소설 ‘흑흑백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그는 1969년 9월 대하소설 ‘토지’를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해 26년에 걸쳐 5부 16권의 기록적인 작품을 남겨 문학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경리는 지난 2008년 5월 5일 세상을 떠난 뒤 그해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됐다.

### 박경리 작품의 양분은 땅에 대한 애정

소설 ‘토지’는 원고지 4만 장에 600만 글자, 등장인물만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대하소설이다. 동학혁명부터 8·15 광복까지, 집필 시간만큼 소설 흐름도 긴 호흡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대한 탐구,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 등 보편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토지’는 한국문학계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널리 세계에도 전파됐다. ‘토지’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소설이 자연을 그리며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박경리의 문학 정신은 공간과 시간에 담겨 후대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연을 그리며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치열한 그의 애정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코스모스를 벗 삼아 들녘을 걷노라니 온전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그의 당부가 귓전에 울린다.

글 정재훈 기자·사진 경남신문

# CULTURE

## 10월 가볼만한 문화행사

가을이 짙어가는 10월이다. 지난 9월은 한가위 연휴로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느라 문화행사를 즐기기에 다소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해마다 겪는 일이겠지만 명절 후유증으로 마음이 불편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땐 문화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0월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골라 아이와 함께, 친구·동료와 함께, 또는 나만의 힐링을 해보자.

### 연극,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 ‘2018 밀양푸른연극제’

**10월 5~9일 밀양연극촌·아리랑아트센터**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밀양푸른연극제’로 이름을 바꾸고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밀양연극촌과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열린다.

‘2018 밀양푸른연극제’는 ‘치유, 성찰, 새 희망’이라는 주제와 ‘연극,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푸른연극제 추진위원회와 밀양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개막 축하공연’ 1편, ‘젊은 우수 연극 초청작’ 9편, ‘밀양시 극단 초청작’ 3편, ‘낭독공연 공모 선정작’ 7편, ‘밀양시민생활예술 프린지공연’ 10편 등 총 29편 내의 작품을 선보인다.



☎ **금액** 일반권 20,000원, 할인권 10,000원, 밀양학생권 5,000원, 낭독공연, 포럼, 프린지공연 무료  
**문의** 055)355-1945~6

### 개천학생무용경연대회

**10월 6~7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6일 10:00, 7일 09:00

**금액** 무료

**관람** 초등학교 이상

**주최** 한국예총 진주시회

**문의** 055)752-0111

### 코미디연극 ‘톡톡 TOC TOC’

**10월 6~7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시간** 14:00, 18:00

**금액** 균일 20,000원

**관람** 만 14세 이상

**주최** (재)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문의** 055)320-1234

### 조운범과 콰르텟엑스의 ‘음악사 이야기’

**10월 6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금액** 전석 10,000원

**관람** 70분 공연, 만 7세 이상

**주최** 주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콰르텟엑스

**문의** 055)379-8550

※공연과 전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즈에 날카로운 풍자와 위트 담긴 무대 뮤지컬 <시카고>

**10월 5~7일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  
**10월 26~28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날카로운 사회 풍자와 위트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가 10월 경남에 온다. 10월 5~7일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에 이어 26~28일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발달했던 시카고를 배경으로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테마로 완성된 작품이다.

'시카고'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뮤지컬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로, 우리나라에선 2000년 초연된 이후 올해로 14번째 시즌을 맞고 있다.

이번 창원과 거제 공연에는 역대 최강 멤버가 모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최정원, 아이비, 남경주, 안재욱, 김경선, 박칼린, 김지우, 김영주 등이 이번 시즌에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6년 만에 공개 오디션으로 통해 새롭게 재정비한 앙상블들이 뭉쳐 초호화 캐스팅으로 역대급 무대를 선보인다.

**창원 공연 시간** 10월 5일 19:30 / 6일 14:00, 18:30 / 7일 14:00  
**금액** VIP석(140,000원) R석(120,000원) S석(80,000원) A석(60,000원) **문의** 1599-7448

**거제 공연 시간** 10월 26일 19:30 / 27일 14:00, 19:00 / 28일 14:00  
**금액** R석(110,000원), S석(77,000원) **문의** 055)680-1050

###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마리'

**10월 13~14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

장르 아동극

시간 13일, 14일 11:00, 14:00, 16:00

금액 균일석 24,000원

관람 60분 관람, 만 2세 이상

주최 극단 오즈

문의 1661-6702

### YB(윤도현밴드) 힐링 록 콘서트

**10월 15~16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

시간 19:30

금액 균일 30,000원

관람 만 8세 이상

주최 (재)밀양문화재단

문의 055)359-4500

### 어린이 공연 시리즈 '우리, 달라'

**10월 18~20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시간 18일, 19일 11:00 / 20일 11:00,  
14:00, 16:00

금액 균일 10,000원

관람 24개월 이상

주최 (재)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문의 055)320-1234

### 제2회 경남 학교예술 음악회

**10월 1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시간 14:00, 18:00

금액 무료석(무료)

관람 120분 관람, 만 7세 이상

주최 경상남도교육청

문의 055)268-1412

책 읽는  
경남

# 다독다독(多讀多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가 권하는 책

교장이 읽으면 좋은 책



## 1.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

저자 목수정 출판사 생각정원 면수 407쪽

**[책 속 한 구절]** 어설프게 남의 방식을 따라 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키워내고 싶은 아이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의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351쪽)

###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프랑스에서 글을 쓰는 작가인 저자가 자녀를 기르며 부모로서 때로는 이방인으로서 느낀 프랑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 위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연대하는' 공교육을 실현하는 그들의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저자는 자신이 받은 한국의 교육과 자녀를 통해 지켜 본 프랑스의 교육을 비교하며 우리의 교육은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한다.

## 2. 어서 와, 마케팅은 처음이지?

저자 박지혜 출판사 탐 면수 263쪽

**[책 속 한 구절]** 마케팅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광고하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상품 기획입니다.(12쪽)

### 마케팅은 대체 무엇인가?

“광고도 사기도 아니라면 마케팅은 대체 무엇인가?”에서부터 책은 시작한다. 저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정의한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정보를 알려주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우리 주위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상품들이 사진자료와 일러스트로 담겨 있어 어려운 주제에 흥미를 돋게 한다. 책 속의 마케팅을 만나보자.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 3. 구미호 식당

저자 박현숙 출판사 특별한서재 면수 248쪽

**[책 속 한 구절]** 살아가며 행복과 불행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오로지 자신들의 몫이야.(237쪽)

###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주일 후에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알려 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삶에 미련 있는 자가 많음을 알기에 불사조를 꿈꾸는 여우 서호는 이승과 저승이 갈라지는 망각의 강을 넘는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뜨거운 피 한 모금에 사십구일의 시간을 다시 사는 행운을 주겠다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찰진 언어로 쓰여 있어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담이 없다. 저자는 학창 시절 기억 속의 한 아이가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말한다.

# 4. 내 마음 배송 완료

저자 송방순 그림 김진화 출판사 논장 면수 124쪽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구절]** “바로 바로 엄마를 팔아드립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말 없는 엄마로, ...이번 기회에 바꿔 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만 채널 고정!”(64쪽)

## ‘엄마’에게 ‘내 마음’을 발송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고 딸에게도 무관심하며 흡소핑에만 열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마음의 공허함을 흡소핑과 먹는 것으로 채우는 엄마와 딸 송이가 등장한다.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하던 송이는 우연찮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준다는 판타스틱한 쇼핑의 신세계를 맞는다. 그 후 흡소핑에 ‘엄마를 팝니다’라는 특별코너가 생기고 송이는 큰 고민 없이 엄마를 팔아버리는데...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이끄는 판타지 동화이다.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 5. Bee Book: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 이야기

글 살렛 밀너 옮긴이 박유진 출판사 청어람아이 면수 47쪽



**[책 속 한 구절]** 여러 벌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벌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더 큰 문제예요. (34쪽)

## 자연이 준 꿀찬스, 벌들의 꿀잼 이야기

윙윙~ 꽃이 핀 곳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열일쟁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꿀벌을 포함해 2만 종이 넘는 수많은 벌은 자연을 위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냉장고가 텅 비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먹는 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왕벌이 하는 일, 8자 춤의 의미, 벌의 감소 위기까지, 꿀 떨어질 듯 화사한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지루해질 틈이 없다. 이 책을 통해 벌 박사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해보자.

## 경남 행복한 책 읽기 캠페인



‘아구할매’ 김혜란

“야들아~ 느그 요즘~ 아~들한테~ 책 좀 읽어주나?  
 내 어릴 때는 우리 할매가 잠 들기 전에 전래동화를 하나씩 들리 줬는데~  
 그 이야기가 우찌 그리~ 재미있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기라~  
 그만치~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 만으로도~ 아~들은~ 책을 거부감 없이~  
 즐겁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기라~ 맨날 천날~ '바쁘다', '피곤타' 카지 말고~  
 부모인 느그가 먼저~ 아~들한테 책을 읽어 주이라~ ”



## 하동교육지원청 ‘2018 엄마랑 청림 캠프’ “청림한 세상, 아이와 내가 만들어요”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지균)은 지난 9월 7일~8일 하동 학생야영수련원(악양면 소재)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엄마랑 청림 캠프’를 열었다. 하동과 인근 지역 학부모와 학생 70여 명이 참석하여 이틀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교직원 중심 청림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특히 학생과 가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림 추적놀이’, ‘엄마와 함께하는 팀빌딩’, ‘청림 6대 덕목 알기’, ‘엄마와 함께 다짐하는 청림서약’, ‘청림IN 부패 OUT 가을 운동회’ 등 바깥 활동을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놀이중심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청림’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별빛 오리엔티어링에서는 청림 6대 덕목 바로 알기로,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치우치지 않는 공정, 공공을 위한 배려, 욕심을 버리는 절제, 내 몫을 다하는 책임의 의미를 배우고 팀별로 단어 맞추기 게임으로 엄마와 아이, 또래 간 화합 시간을 마련했다.



**\*청렴서약 :** 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나 자신에게 청정사회를 만들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엄마는 가정에서 약속과 정직을 기초로 한 청렴 마인드 형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나 스스로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마련.



**\*청렴 운동회 :** 부정부패, 거짓말, 청탁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투명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의 이어달리기, 자연물로 청렴 글자 만들기, 협동게임, 꾸미기 체조 등으로 공정하게 놀이에 임하는 법과 청렴 6대 덕목을 되새기는 시간 마련.



한지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렴은 가정에서부터 다져질 때 비로소 문화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이 캠프를 통해 아이와 내가 청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글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이만정 팀장, 김유미 주무관·사진 이윤상 작가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안내

### 과제 1.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

- 학생들이 재도전 기회를 위해 정시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연계
  -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전문대, 산업대, 원격대 등은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해 제외)

### 과제 2.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해 재정지원과 연계

### 과제 3.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 반영, 학생의 부담 완화 및 선택권 강화
- 국어 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규제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 합리적 조정 검토(예시 : 공통과목 75점, 선택과목 25점)

### 과제 4.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상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

### 과제 5. ebs 연계율

- 수능 출제 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점차 연계로 전환

### 과제 6. 학종 공정성 제고

- 학생부 기재 개선
  - 수상경력 : 현재대로 개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 : 학기당 1개 이내(총 6개 제공 가능)
  - 자율동아리 기재 동아리 개수 학년당 1개로 제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한 한글 30자 이내 기재(공백포함)
- 현재대로 교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중심 기록

### 과제 7. 대학 선발 투명성 제고

- 대필 허위작성 등 우려 있으나 학생 고유 특성 확인할 수 있는 자소서 개선, 서식 개선하고 면접 등 통해 관리 강화, 중요 개선 사항은 박스 처리.

### 과제 8. 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

### 과제 9. 면접 구술고사 개선

- 재정지원과 연계해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 최소화 유도

### 과제 10. 논술, 적성고사 폐지

-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추진- 2022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시 반영
-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 유도(국정과제)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식

**교육위원회 양산도서관·양산중학교·(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 등 방문**  
 양산도서관 이전·특성화고 설립,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 개교 현황 등 현장 소통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9월 19일 양산지역을 방문하여 양산도서관 이전 설립, 양산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진행 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남 최초 공립 기숙형 체험위주 영화 중점 밀양영화고등학교 시설을 돌아보며 영화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진행 현황,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반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개원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원안 가결’**  
**고성·남해 기숙형 거점중학교 중학구 확대… ‘도내 동지역(사천시 제외) 초등 졸업자 지원 가능’**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남해 꽃내중학교는 중학구를 조정하여 해당 중학구 외 경상남도 내 시의 동지역(사천시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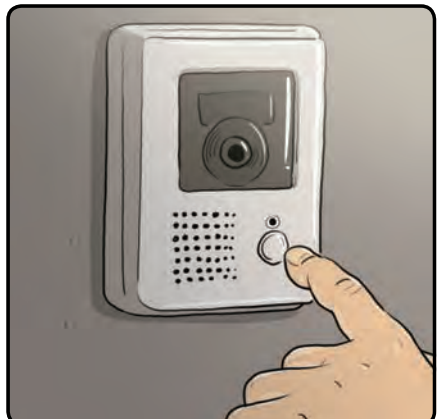


# 학교폭력 이야기 시즌2

## 고슴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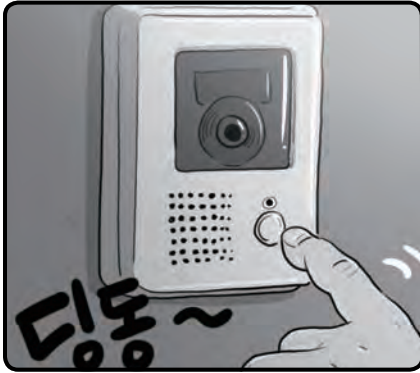
학교폭력 이야기 시즌2\_ 고슴도치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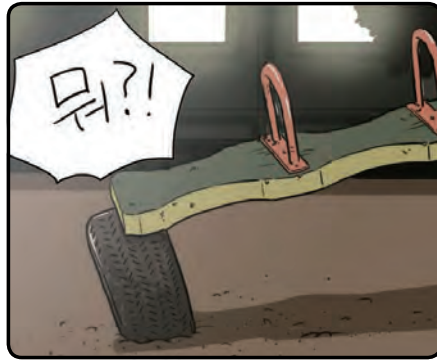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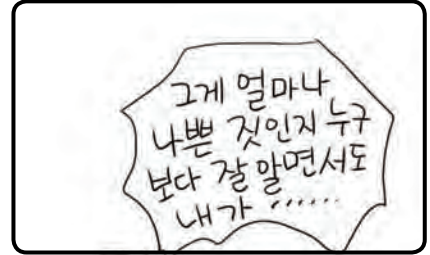




6면에서 계속 ...

학교폭력 이야기 시즌2\_ 고슴도치 6편





7편에서 계속 ...



사회를 오염시키는 부정청탁, 부정부패! **경상남도교육청** 이 걸러냅니다

깨끗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청렴한 거름망**

# 독자 참여 코너 안내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는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독자 참여 코너를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독자 참여 코너

분야	내용
별난 선생님 이야기	특색 있는 교육활동, 수업나눔 등 교사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별별 꿈 이야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가는 다양한 활동
즐겁지 아니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엄마들의 수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거리를 수다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
힐링&필링 여행기	우리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 여행정보, 여행이야기
응답하라 세대공감	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세대차이 이야기
영화이야기	영화 속 교훈, 영화 속 교육이야기

## 참여방법

- 제출기한: 매달 5일까지
- 제출방법: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 이메일로 보내기 (gne1@korea.kr)  
- 연락받을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 기재
- 제출형식: 형식 제한 없으며 관련 사진 자료 제출
- 원 고 료: 채택 시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문의전화: ☎ 055)278-1784

**아이좋아 경남교육**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세요.

경상남도교육청이 발행하는 매거진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하시면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안내

홈페이지(www.gne.go.kr) → 경남교육홍보관 → 매거진 신청/해지      모바일 신청가능  
발행시기 월간      구독료 무료      문의 홍보담당관 055)278-1784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검색 뒤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앱은 매거진 발행일 기준 일주일 뒤부터 서비스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